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August 26, 2022 Vol. 827

본지 협찬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 선교컨퍼런스 성료

제3차 8.15광복 77주년 기념 글로벌복음 통일전문네트워크선교대회(대회장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가 15일 휴스턴한빛장로교회(담임 정영락 목사)에서 개막했다.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가 주최, 기드온동족선교와 한빛장로교회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휴스턴협회가 협력하고 미주 기독일보가 협찬했다. 1차 대회는 2020년 LA 파세데나, 2차 대회는 2021년 하와이 코나에서 진행됐었다.

이번 3차 대회는 휴스턴기독교교회연합회장 이상도 목사가 통일을 위한 기도로 문을 열었다. 이목사는 “남북이 분단된지 77년이 지나고 있다.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달라”면서 “수많은 남북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환영사를 전한 정영락 목사는 “교회가 1차부터 이 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2차 때 꼭 휴스턴을 모시려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번 3차 때에 섬기게 됐다”면서 “기다리게 하신 만큼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모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북한선교에 큰 도전을 받고 더 나아가 휴스턴



휴스턴 한빛장로교회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기독일보

에 북한선교의 놀라운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첫날 말씀을 전한 임현수 목사는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 “하루 빨리 북한정권이 무너지야 하고 하루 빨리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저런 이단 공산주의 집단으로 하루 아침에 전락된 것인지 여러분은 북한정권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야 복음통일을 위한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평양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귀를 의심할 만한 지역 명칭이 나오는데 은혜, 선교, 부흥, 낙원 등”이라면서 “이는 1907년 평양대부흥 당시에 지어졌던 지역

의 이름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5천년동안 단일민족으로 함께 먹고 자고 살아오던 우리 형제와 골육인 데 사상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비참하게 된 이 상황을 보라”고 말했다.

또 임 목사는 “북한을 볼 때 악의 축인 북한 정권과 피해자이면서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인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봐야지 착각하거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핵무기를 개발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을 만든 정권의 실체를 봐야 한다. 현재 북한은 전 국토가 황폐화돼 있고 민동산 밖에 없다. 최악의 공산주의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했다.

특히 임 목사는 “북한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800만 명을 죽였다. 온갖 기아 상황과, 노동교화소 및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일어나는 살인 등으로 우리의 동포들이 죽어나갔다”면서 “어떻게 350만 명을 굶어 죽이는 나라가 있겠는가. 또한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는가. 평양 밖에 모르는 귀족의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90% 가량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다 해도 300만 명만 있어도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북한 정권”이라고 고백했다.

북한정권의 실체와 역사적 허구성에 대해서도 “빨치산이 통일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고 김일성이 통일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면서 “30만 군중을 평양에 모아 놓고 백성들 마음을 도둑질해서 세운 집단이 바로 현재의 북한이다. 북한에 있으면서 많은 서적들을 읽었다. 김일성 회고록도 모두 읽었고 그 결론은 정치적 종교적 적그리스도라는 것이다. 2천만이라는 광신자를 만든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사이비 종교집단이 되어 버렸다”고 개탄했다.

임 목사는 또 현재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은 통일을 위한 준비이자 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대원 기자

美 청소년 사역자 “매년 10대 기독교인, 100만 명 떠나”

미국 기독교 청소년 사역단체 ‘데어 투 셰어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Dare 2 Share Ministries International) 회장인 그렉 스티어(Greg Stier)가 10대들을 제자로 양성하는 사역으로 시급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그가 쓴 ‘틀에 박힌 청소년 사역의 불감증을 끝낼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게재했다.

스티어는 칼럼에서 “누군가는 말했다. 불감증이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는 청소년 사역에서도 사실이다. 지난 50년 동안 청소년 사역

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해 오던 방식의 모임을 열고, 같은 종류의 일(게임, 노래하기, 발표, 수업, 간식 먹기 등)을 한다. 이러한 늘 똑같은 주간 모임 외에도, 같은 식의 연례 행사(겨울 수련회, 여름 캠프 및 특별 행사)를 연다”며 “매주, 매월,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똑같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스티어는 ‘위대한 기회.ORG’(Greatopportunity.org)가 실시한 대규모 프로젝트 결과 “미국은 매년 100만 명의 기독교 10

대를 잃고 있다. 무언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향후 3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이 십대들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Z세대에게 다가가 제자화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다음 세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멈출 때다. 예수님이 십대에 불과한 제자들을 찾아가 훈련시키고, 결집하기 위해 하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할 수 없는 지혜로 기도하셨



전도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의 모습. ©빌리그 래함전도협회 제공

다(마 3:13). 소수의 사람에게 투자하여 선교를 하게 하였고(마 3:14) 길 위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눅 10:1-20, 11:1-13)”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기쁜우리교회 30명 장학생 선발, 7만 달러 장학금 수여

창립 첫 해부터 장학사역을 시작해 매년 다음세대들을 격려하는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올해도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7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난 21일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30명의 장학생들에게 일반 장학금 6만 달러가, 히스패닉 커뮤니티 학생들과 멕시코 신학교에 각각 5천 달러가 전달됐다.

기쁜우리교회는 올해 책정된 장학금 외에도 온 교인들이 정성을 담은 장학 헌금과 바자회 수익, 개인 도네이션 등이 모여져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또한 선발 과정에서 숨은 미담도 공개돼 모

인 이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했다. 장학생 선발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신학생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원해서 개인 장학금을 후원한 성도가 있었으며, 부모의 사랑과 믿음을 따라 자녀가 개인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경진 목사는 “올해 장학금 수여식은 어느 때 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풍성히 넘쳤던 시간이었다”며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기쁜우리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기쁜우리교회 2022 장학금 수여식 ©기독교일보

“한 깊은 한인 디아스포라, 복음통일과 세계 복음화에 쓰일 것”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선교대회(대회장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넷째날인 19일 시카고 지역에 있는 트리니티인소사이어티 연구소장 김종덕 목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사명’을 주제의 강의를 통해 고난의 역사를 겪은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세계선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한민족을 흘으신 것은 이미 1800년대부터 시작됐다. 1900년대 초 하와이와 멕시코에 노동인력으로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민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조선족과 쿠바 한인 등 현재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잘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조선족의 경우 당시 국민당이 한인을 차별하고 귀국을 종용하는데 반해 공산당은 소수민족으로 인정했던 당시 역사적 배경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관련 김 목사는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한민족의 후손인 고려인들은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일대에 약 50만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 교육했고, 근면 성실하게 일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인 72%가 남북통일 중재자 역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남북한에 대해 균등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며,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미국과 멕시코 한인 이민 역사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초기 하와이 이주와 멕시코 이주는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었다. 특히, 멕시코 이민자들은 부채노동자로서 그 노동환경은 하와이 이민보다 더 심각했다”고 가슴 아픈 역사를 소개했다.

하와이에서의 노동환경은 조선에서 이민을



김종덕 목사 ©기독교일보

권장하던 홍보문구와는 차이가 커서 이름 대신 반고(번호표)를 통해 불려지고 채찍을 맞으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첫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이후 조선에서는 몇 차례 더 하와이 이민이 이뤄진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경우 유카탄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짐승처럼 건강상태를 치아의 상태로 점검받고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에네켄 농장으로 팔려갔다. 김 목사는, “이민자들은 멕시코 노예혁명과 더불어 4년 노동계약이 마쳐져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으나 이미 대한제국은 사라져 돌아갈 조국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나라 잃은 이민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으로 멕시코에 남거나 사탕수수 노동자로서 쿠바로 이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 디아스포라 형성 과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고난의 역사로만 보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소명을 위해 흠뻑 땀 흘렸다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개척 과

정에서 정말 고생하고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초기 이민자의 경우 노예처럼까지 받았지만 복음통일을 이뤄가는데 있어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먼저 보내진 민족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곳곳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족 디아스포라를 통해 북한 지하교회의 명맥이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목사는 “1988년 북한에 불어닥친 기근으로 인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온 배고픈 북한이 탈민들에게 국경 주변의 조선족 처소교회는 한국 선교사들의 물질적 후원을 받아 음식과 쪽성경을 이들에게 전해줬다”면서 “이 만남은 북한 지하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북한 지하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목사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를 보면 비참하고 처절하고 아픈 일 가득하고 분노 상처가 있다.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해서 영광으로 만드실 것”이라면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들에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대원 기자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 초청 말씀 사경회 연다

9월 2일(금)~4일(주일)까지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한길교회(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가 오는 9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노진준 목사를 강사로 말씀 사경회를 연다.

노진준 목사는 “고백의 무게”라는 주제로 네 번의 사경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9월 2일(금) 오후 7시30분 베드로의

고백(요21:15-17)

9월 3일(토)

오전 6시 마르다의 고백(요 11:17-27)

9월 4일(주일)

오전 9시 아버지의 고백(막 9:19-24), 오전

11시 부끄럽지 않은 고백(롬5:1-6)



노진준 목사

문의 : 323-735-0200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공부, 성경의 세계로 떠나요”

남가주온유한교회, 제2차 성경의 세계 오픈 강의

마치 게임 하듯 가상 공간에서 성경 속 세상을 구석구석 여행하며 재미있게 성경을 배우는 “성경의 세계”가 오는 9월 3일(토)부터 24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브레아 소재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 335 N. Puente St. #C Brea, CA 92821)에서 열린다.

“성경의 세계”는 디지털로 성지순례를 하며 3일에는 구약의 세계, 10일에는 기독교

Q&A, 17일에는 예수님의 세계, 24일에는 바울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강의 정원은 25명이며, www.bible-world.com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해야 한다.



남가주온유한교회 장범원 목사

문의 626-833-7787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로 행복한 교회 세워갑니다”



느헤미야미니스트리 사역을 소개하는 안민 전 고신대 총장 ©기독일보

[인터뷰] 안민 고신대 전 총장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40년간 봉직하고 올해 초 고신대학교 총장직에서 퇴임한 안민 교수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노래하는 총장으로도 유명했던 안민 교수는 자신이 설립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와 함께 쉽고 회복, 치유가 필요한 교회를 찾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을 외쳤던 느헤미야의 심정이 담겨있다. 평생 음악인으로 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

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쳤던 안민 교수가 ‘그 만하면 이제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 된다’는 달콤한 유희를 뒤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과감히 뛰어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쉽 없이 달려오다 탈진한 목회자들을 그저 무심히 지나칠 수가 없었다. 교회에서는 든든한 만행과도 같지만 누구보다 격려가 필요한 중직자들,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부흥회나 음악 콘서트는 엄두도 못내는 교회들을 보면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그가 진행하는 부흥회는 여타의 부흥집회와는 분명 다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감미로운 음악과 유쾌한 토크 가운데 맛있는 음식이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또 향긋한 커피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위로가 있다. 콘서트에 초대 받은 사람들은 하모니를 이룬 아름다운 찬양에 감동하고, 한참을 울고 웃는 가운데 상처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일들이 어지고 있다. 선한 일에 뜻을 같이하는 후배 음악인들도 합세했다.

“은퇴 후에 노후를 즐기며 쉴 수도 있지만, 행복을 전하는 이 사역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

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지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니까요.”

그의 콘서트에는 따뜻함이 있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헌신했던 위대한 삶이 있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중간 중간 미소 짓게 하는 입담에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을 담았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을 모두 드렸던 것처럼 저의 삶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는 그것이 제 삶의 이유니까요.”

한편 안민 전 고신대 총장은 1981년 서울대 성악과, 1984년 서울대 성악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해 3월, 고신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후, 학생처장과 교무처장, 교회음악대학원장, 부총장과 총장을 역임하며 고신대 발전을 위해 힘썼다. 또 국제 KOSTA강사와 부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공동대표 등을 맡았었다.

김동욱 기자

“3만5천 탈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복한 복음화”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서 탈북 신학생들 간증 이어져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선교대회(대회장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둘째 날 휴스턴한빛교회(담임 정영락 목사)에서 탈북 신학생들의 은혜로운 간증들이 이어졌다.

간증을 전한 총신대 ○바울 전도사의 간증에 따르면 유치원 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에 대한 미화된 영웅담을 배우고, 소학교에서는 김일성 부자의 혁명활동을, 또 고등학교에 가서는 김일성 부자의 혁명역사를 배웠고 전문학교부터는 김일성의 교시와 주체사상에 대해 착실히 배우면서 철저한 김일성주의자이자 주체사상 신봉자로 자라나게 된다.

본인의 경험으로 전했던 북한 군대의 실상은 처참했다. 선군정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군인들은 굶주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고 특히 고난의 행군 당시의 군시절을 보내야했던 군인들은 쪼뼉리와 풀을 먹으며 악착같이 버텨야 했다. 또 군대에서는 훈련 뿐만 아니라 농사 및 어업과 벌목 등 온갖 일들을 해야 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말사료를 먹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힘든 북한의 상



제3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둘째날인 16일 탈북 신학생들의 간증 이어졌다. ©기독일보

황에 대한 원망이 김일성 부자를 향하지 않고 철저히 세뇌된 대로 미국의 잘못으로 여겼다고 했다.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결국 선택한 것은 해외 노동자 지원이었고, 이 또한 정말 운이 좋아야 뺨힐 수 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종이었다. 해외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북한에서 받아왔던 교육이 잘못됐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본주의는 병든 세상이라고 배웠지만 전기불이 어디에도 다 들어오고 냉온수가 하루종일 나오는 시설을 보고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됐고 인터넷과 신문 등으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당국이 자신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간증했다. 찬송과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았을 때 선교사가 전

해준 말이 마음에 와 닿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영접하게 하실 때 믿게 된다는 말이었다. 당시 저녁마다 찬송을 듣고 있는데 그 때 머물던 곳은 전기가 불안정해 매일 잠깐 동안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찬송을 통해 마음에 은혜가 이상하게 가득해 지는 날이었는데 밤새 전기가 들어왔고 찬송이 끊기지 않았다. 그는 당시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나무와 풀을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이 막 이해가 됐고 마음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북한에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만5천명의 탈북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확신했다. 현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온 세계에 다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북한은 못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바로 탈북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탈북자들 중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그 땅의 우상을 향해 복음의 폭탄을 터트리자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제2차 샬렘 목회자·사모 리더십 세미나

오는 10월 8일~10일까지 30명 대상, 500달러 장학금

GIFT 상담치유 연구원(대표 리디아 전 박사, 전달훈 박사)가 오는 10월 8일(토)부터 10일(월)까지 30명의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제2차 샬렘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전달훈 박사와 리디아 전 박사가 강사로 나서 목회 지도자들이 내면 탐색과 치유를 통해 건강한 영성을 갖도록 돕게 된다.

또 다양한 임상경험과 전문지식, 성경적 진리와 영성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리디아 전 박사는 “많은 목회 지도자들이 감정적 고통, 가정문제, 관계의 문제, 도덕적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인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샬렘”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세미나를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500달러이나 참석자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제공된다. 등록 마감은 9월 9일까지다. 김동욱 기자 문의: giftshalem@gmail.com



창립 감사예배 및 임직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렌셔 장로교회가 창립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서 2:5)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겸손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둬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8월 28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 1060 Crenshaw Bl. 2nd Fl. LA, CA 90019
- **문의** : 한현중 담임목사(213-407-1600)
조영철 장로(213-332-9511)





한현중 담임목사



은퇴장로 : 박대원, 주리돈 **사무장로 추대** : 김제임스, 서진호
명예장로 : 이영두 **권사임직** : 이경미, 조원희



크렌셔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뻘한 교회 아닌 편(Fun)한 교회, 생명력 넘치는 복음 전해야”

남가주교계연합회(상임대표회장 신승훈 목사)는 지난 15일, 본국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초청해 LA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 개최했다.

소강석 목사는 보다 적극적인 목회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현장예배를 갈망하는 욕구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신앙과 신학의 본질 회복, 초대교회적 원형교회 회복을 주장했다. 기독교 쇠퇴 원인으로는 영적 태만과 냉담, 무신론적 교회 불신주의를 꼽고, 교회 내 이념 갈등과 내부 충돌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목회자의 윤리 도덕성 붕괴가 탈종교화를 부추기고, 기독교인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회가 보다 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주목하며 ‘나누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등 교회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소강석 목사 ©기독교일보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교회의 새로운 영도 확장을 강조하면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교회가 다음 세대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성령에 압도되어서 마음 속에 일어나는 넘치는 감동과 감격으로 ‘애간장’이 끓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의 관건

임을 강조했다. 소 목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목회자가 바르고 품격 있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뻘한 교회와 설교가 아닌 편(Fun)한 교회로, 생명력 넘치는 복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강석 목사는 자신을 둘러싼 ‘좌파 목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존경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좌파·주사파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념보다 복음의 본질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과 사회전반에서도 교회가 성 소수자들을 핍박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예전에는 반동성에 운동도 앞장서 펼쳤지만, 교회 이미지 갱신을 위해 이제 반동성에 운동은 시민단체에 맡기고 교회는 뒤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미드웨스턴 한국부 제12차 온라인 컨퍼런스 연다

세계적 석학 ‘폴 트레빌코 교수’ 초청 8월 29일(월) “요한복음의 해석으로 요한일서 읽기” 주제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바울과 요한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트레빌코 교수를 초청하여 “요한일서의 하나님 중심성: 요한복음의 해석으로 요한일서 읽기”라는 주제로 8월 29일(월), 제12차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지난 열한 번의 컨퍼런스를 통해 “환경신학-지구생태 유지성” “사회적 기업 윤리” “생명신학과 기독교 윤리” “신약 연구에 제2성전기 문헌의 중요성” “사유한다는 것”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왔고, 현장과 신학의 접목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듣고 토론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컨퍼런스를 더욱 기대하게 한다.

폴 트레빌코 교수는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신약 학자인 제임스 턴 교수의 지도를 받아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30년 간 신약성과 연관된 소아시아 지역들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바울과 요한의 글에는 수신자가 소아시아 지역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트레빌코 교수는 이 지역의 문화, 종교, 역사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울과 요한 서신에 대한 연구의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별히 바울의 세 개의 서신(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과 요한의 글(요한복음, 요한1, 2서, 요한계

시록)의 수신자에 포함되는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학자로 손꼽힌다.

트레빌코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요한복음의 해석으로 요한일서 읽기’라는 주제를 새로운 접근방법과 관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트레빌코 교수의 학문적 풍성함과 예리한 해석학적 통찰로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깊은 영감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트레빌코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신찬기 전도사가 한국어 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트레빌코 교수는 현재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저명한 신약성서학회인 Studiorum Novi Testamenti Societas (SNTS)의 일원이자, 뉴질랜드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의 펠로우다. 또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The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2013~2017). 수많은 저작 중 대표적인 저서로 Jewish Communities in Asia Minor (1997)와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2011) 등이 있다.

12회 미드웨스턴 온라인 컨퍼런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 등록할 수 있다. 사전 등록한 자에 한해 이메일로 좀 접속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 문의: jhkim@mbs.edu

“비즈니스 선교, 회계·세무·퀵북은 필수”

그레이스미션대학 9월 3일(토)부터 15주간 비지니스 선교 회계 강좌 개설

그레이스미션대학(총장 최규남 박사)는 오는 9월 3일(토)부터 15주간 비지니스 선교를 위한 회계와 세무, 퀵북(QuickBooks) 강좌를 개설한다.

회계 원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이번 강좌는 퀵북 프로그램을 직접 랩탑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사업체, 교회, 선교회, 선교사, 신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비영리 단체 회계 △교회 회계 △세금의 개념 △년간 수입 세금 보고 △회사와 비영리 단체의 세금보고 △예산배정과 성과 분석 △회계원리와 재무제표 △거래에 대한 분석과 기록 △재무 보

고와 대차대조표의 분류 △재고, 현금, 내부조정, 받을 금액 △장기자산, 단기 부채, 현시가 회계 △재무제표 분석 △관리 회계와 원가 시스템 등이다.

매주 강좌는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로 온라인 줌과 현장 교실 강의로 이뤄진다. 수강과 청강 등록 모두 가능하며 등록신청을 한 모든 학생들은 퀵북 실무를 위한 책자와 교육용 CD를 제공받게 된다.

강사로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무처장과 교회행정을 담당하는 제임스 구 교수가 나선다. 제임스 구 교수는 IT,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이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강의 신청은 그레이스미션대학 등록 담당(registrar@gm.edu, 714-525-0088 Ext 102)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강비용은 150달러며 강의 책자 및 교육용 CD가 포함된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렌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담임목사 청빙

THE WAY CHURCH

한길교회는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단에 속한 개혁주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을 드러내며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남가주 LA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교역자 - 담임목사

지원자격

- 1. 10년 이상 목회경험 (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 2.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M. Div. 학위 취득자
- 3. PCA교단 멤버이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본교회 지정 양식-교회 홈페이지 http://churchtheway.com에서 다운로드)
- 2. 본인소개, 신앙고백서/ 목회비전
- 3. 1년 이내 두편의 설교 (동영상 link or mp4)
- 4.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 5. 목회자 2명의 추천서 (preferred now, or later upon request)

제출기한 2022년 8월 31일

접수방법 이메일(모든 서류는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waychurch.calling@gmail.com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명성교회 찬성 98.8%, 김하나 목사 청빙 재확인 · 재추대

명성교회가 21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재확인 △위임목사 재추대 당회 결의 추진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저녁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열린 공동의회 투표 결과 총 투표자 6,192명 중 찬성 6,119명 반대 57명 무효 16명으로, 찬성율은 98.8%였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를 통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약 5년 5개월이 지나 이날 다시 공동의회를 갖고 이 결의를 재확인 한 것이다.

김하나 목사는 그러나 이 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어서 교회 측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단(예장 통합)의 소위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제1항)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란을 거듭한 끝에 교단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소위 ‘수습안’을 가결했다. 김하나 목사를 2년 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실제 김 목사는 이날 교회로 복귀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목사가 교회로 복귀하기 전 교회 측이 공동의회 없이 당회에서만 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재추대를 결의했다는 점이다.

수습안 내용 중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것이 있는데, 교회 측은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별도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만 관련 당회 결의와 노회(서울동남) 인준만 거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 측이 ‘당회 재추대 결의 추진안’을 21일 공동의회에서 다룬 것은 이런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명성교회 공동의회가 21일 저녁 진행되고 있다.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이번 공동의회는 새로운 사항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청빙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다시 한 번 온교회와 교인들이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 98.8%의 찬성율을 보인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청빙에 관한 교회와 당회, 그리고 전체 교인들의 의중과 지지를 확고하게 나타내는 것”이라며 “명성교회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명성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년이 지나 찬성론자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공동의회 결과는 적어도 세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며 “이 문제의 근본은 해서는 안 되는 세습을 했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영 기자

“예루살렘 ‘통곡의 벽’? 양평에 ‘성경의 벽’ 세울 것”



K-바이블 ‘성경의 벽’ 조감도. ©하이패밀리

사단법인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에서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을 기념해 ‘K-바이블(BIBLE) 프로젝트(이하 K-바이블)’ 추진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개최했다.

‘K-바이블’은 경기도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에 길이 100미터, 높이 3-9미터 벽에 1,753쪽에 달하는 개역개정 성경 66권 전문을 새기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A4 크기 스테인리스 판넬에 구약 4,088장과 신약 1,265장 등 총 5,353장 약 150만 글자를 훈민정음체 음각으로 새긴 조형물을 설치하고, 음향과 조명 장치를 통해 누구나 읽고 들을 수 있는 특수장치로 꾸미겠다는 것.

장소와 벽면 모두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운영중인 하이패밀리에서 무상 제공하며, 오는 9월 21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내년 부활주일인 2023년 4월 9일 최종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대용 기자

많은 업무량, 적은 사례비...생활 만족도 높지 않은 ‘부목사’

‘만족’ 45% ‘불만족’ 29%... 5점 만점에 3.2점
힘든 점, 많은 업무량 47% 적은 사례비 46%
평균 업무량, 주 5.7일·하루 9.8시간 근무

한국교회 ‘부목사’들 중 “생활에 만족한다”는 이들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로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2점이었는데, 그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적은 사례비’가 꼽혔다.

기아대책과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부목사 55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회 사역 실태 및 인식을 조사, 1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부목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만족한다(매우+약간)’가 45%, ‘불만족한다(매우+약간)’가 29%였다.

‘부목사 생활에서 만족하는 점’으로 ‘담임목사와 관계가 좋다/갈등이 없다(41%)’와 ‘교인들의 감질이 없다/교인들과 관계가 좋다(35%)’가 각각 1, 2위로 꼽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부목사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부목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음(47%)’과 ‘사례비가 적어서(46%)’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담임목사와의 갈등’(21%)이나 ‘교인들로부터의 감질/무시당함(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목사들이 느끼는 힘든 점은 교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교회 규모가 클수록 ‘많은 업무량’을,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적은 사례비’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은 것.

교인 수 1천 명 이상 교회의 부목사들 중 1

등 점으로 ‘많은 업무량’을 꼽은 비율은 56%, ‘적은 사례비’를 꼽은 비율은 41%였다. 반면 99명 이하 교회에선 ‘많은 업무량’이 36%, ‘적은 사례비’가 66%였다.

연구소는 “교인 수 500명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적은 사례비’, 그 이상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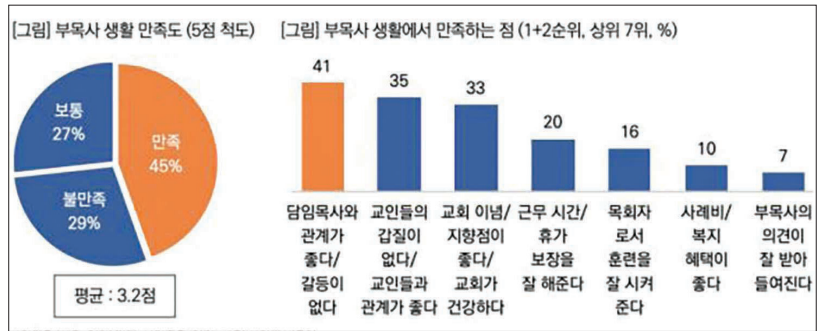
업무량과 사례비 액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묻은 결과, 부목사의 1주일 평균 근무 일수는 5.7일,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8시간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의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부목사의 월 평균 사례비는 2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299만 원이 59%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 30%, 199만 원 이하 11% 순이었다. 사례비를 포함한 이들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32

만 원이었다.

월 평균 사례비는 교회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인 수 1천 명 이상 교회는 평균 296만 원, 500~999명 교회는 268만 원, 100~499명 교회는 241만 원, 99명 이하 교회는 177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소규모 교회의 열악한 경제적 지원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지표”라고 했다.

한편, 향후 사역 진로 계획에 대해 부목사의 49%가 ‘기존 교회 담임목사 부임’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교회 개척’(16%)이었다. 그러나 교회 규모별로는 그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다. 교인 수 1천 명 이상의 교회에선 ‘기존 교회의 담임목사 부임’이 5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99명 이하 교회에선 그 비율이 34%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움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보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현장예배 강행’ 2억대 벌금 맞은 교회, 하급심 뒤집고 승소

미국 법원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집회 금지지를 위반한 교회에 벌금 20만달러(한화 2억 6천만원)을 선고한 하급심을 뒤집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제6항소법원 재판부는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산호세 소재 갈보리채플교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2월 17일, 하급심 법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2020년 11월 12일에 시행한 ‘100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 명령을 어긴 갈보리채플교회에 3만3천달러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그해 10월 13일, 갈보리채플교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예배당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예배를 이어갔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학교, 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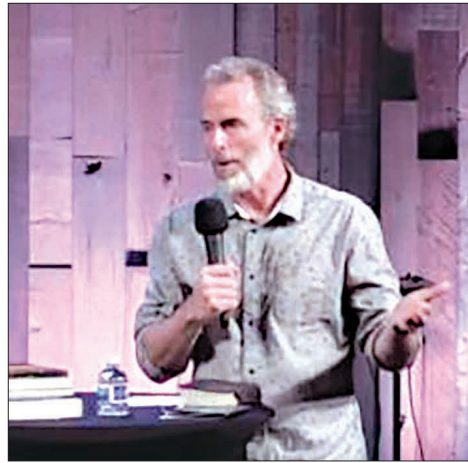
역, 공항, 의료 시설, 상점 및 식당과 같은 계속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고, 이는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수정헌법 1조의 (종교의) 자유 행사 조항을 위반하며 종교기관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2020년 11월 2일 집회 금지 명령을 어겨 부과된 벌금 2만2천달러와 2021년 2월 16일 행정명령을 무시한 혐의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선고된 총 20만 달러의 금전적 제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0년과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인용했다.

2020년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로마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아구다트 이스라엘 교구의 예배 권리를 지지하며, 주정부가 세속 시설보다 종교 단체에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소재 갈보리채플교회 마이클 맥클루어 담임목사 ©갈보리채플 페이스북

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대유행 상황에도 헌법은 무시되거나 잊힐 수 없다”며 “

예배 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21년 4월 ‘탄돈 지방 법원 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개인 실내 모임 참석을 3가구로 제한하는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종교 행사와 관련한 코로나 제한에 대한 제9 순회(항소법원)의 분석을 약식 기각한 것이 이번만 다섯 차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는 미용실, 소매점, 개인 관리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 및 콘서트의 개인 스위트룸, 실내 음식점은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이도록 허용했다”며 “가정의 종교 활동보다 그와 비슷한 세속 활동을 더 호의적으로 취급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유진 기자

미 복음주의루터회 ‘동성혼 반대 성명’ 개정…압도적 찬성



성소수자 운동가인 무지개기를 두른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 성직자들이 촛대를 들고 예배당을 입장하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 제공

미국복음주의루터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ELCA)가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교인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입장이 포함된 교단 선언문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1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ELCA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09년 채택된 ‘인간의 성(性)에 대한 수정: 선물과 신의 사도 선언문’ 개정안을 찬성 708표, 반대 93표로 통과시켰다.

ELCA는 ‘양심에 구속된(bound conscience)’ 4가지 입장문이 포함된 선언문을

총회 테스크포스(TF) 팀에 의뢰해 개정된 뒤 2025년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LCA가 2010년부터 동성애자 목회자를 허용한 주제를 미뤄볼 때, 성소수자(LGBTQ) 편향적인 사회적 선언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동부 시노드 소속 미하엘 솔테 대의원은 기존의 선언문이 “우리 교회의 이해를 바꾸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회적 성명을 재고할 때”라며 “교단이 쿼어(queer)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긍정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그 시작은 양심에 구속된 4가지 입장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시노드의 조지프 클링거 주교도 “양심에 구속된 입장이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성소수자들) 완전히 환영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반면, 로우어 서스케한나 시노드의 베스 솔레겔 주교는 “양심에 구속된 조치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이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해가 될 것”이라며 “성경의 권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09년 ELCA 총회가 채택한 선언문은 교

단 내에서 “동성 간의 헌신적 관계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립된 양쪽 모두를 고려했다.

또한 “동성 간의 성행위는 성경적 가르침과 자연법에 대한 이해에 반하는 죄악”이라고 믿는 견해를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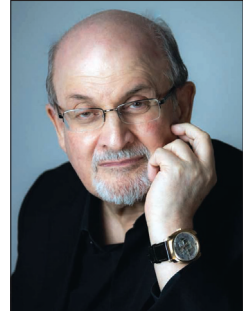
이와 함께 “동성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회개와 금욕적인 생활방식을 촉구하는 것이 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한 최선의 봉사라고 결론짓는” 입장을 한데 묶었다.

나머지 3가지 입장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상호주의와 배려로 동성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부류, “동성 관계를 지지하지만 이런 관계를 결혼과 동일시하지 않는” 부류, 그리고 “동성 관계가 이성 간 결혼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 성 윤리 및 지위를 유지하길 원하는” 부류를 포괄한다.

이어 선언문은 “우리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다른 의견에 대해 교회 신자들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분별하며, 목회적 돌봄과 상호 존중을 통해 계속 동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선언문을 채택한 2009년 총회에서 ELCA는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소속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김유진 기자

‘반 이슬람 소설’ 英 작가, 뉴욕서 무슬림에게 피습 후 호전 중



소설 ‘악마의 시’를 쓴 인도계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 ©페이스북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킨 유명 소설 ‘악마의 시’를 쓴 인도계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75)가 뉴욕에서 강연 직전 무슬림의 칼에 피습을 당했다가 호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2일 오전 루슈디는 뉴욕주 셔쿼터 연구소에서 강연 무대에 오르는 중 괴한에 의해 목과 복부를 15차례나 찔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뉴저지 출신의 시아파 이슬람교도인 하디 마타르(24)이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 BBC 방송은 루슈디의 대리인 앤드루 와일리의 말을 인용, 12일 그가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 루슈디가 한 쪽 눈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팔 신경이 절단되고 칼에 의해 흉기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14일 로이터통신은 루슈디가 “인공호흡기를 뺐고 회복 과정을 시작했다”며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만, 상태는 좋은 방향으로 호전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건 당일, 루슈디는 망명 작가들을 위한 토론회의 진행자 랄프 헨리 리스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용의자가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다. 이날 그는 청중들에게 미국이 망명 작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라는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당시 강연장에는 청중 2500여 명이 자리를 매웠다. 그중 한 명인 린다 에이브람스는 AP통신에 “5명의 남자가 용의자를 끌어냈지만 여전히 칼로 찌르고 있었다. 격분한 상태였다”고 했다.

또 다른 목격자인 캐슬린 제임스는 용의자가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아직도 이 작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사법 소식통을 인용해 현장에서 체포된 마타르가 과거 이란 정부에 동조한 전력이 있으며, 그의 소설 미디어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이란 혁명수비대 및 시아파 극단주의 지지자”라고 보도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서 태어난 루슈디는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며 종교적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어왔다. 그는 1988년 ‘악마의 시’를 출간했고,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묘사는 이슬람권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듬해인 1989년, 당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파르와(종교 칙령)를 통해 루슈디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고, 루슈디를 죽이는 대가로 300만불의 현상금이 걸렸다.

이후 루슈디는 10년 동안 영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가족과 함께 은둔하며 지냈다. 김유진 기자

미 법무부, 남침례회 내 여러 단체 ‘성학대 관련’ 조사 시작

SBC 지도자들 과거 문제 해결, 재발 방지 노력

미국 법무부가 남침례회(SBC)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 교단 관계자가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BC 집행위원회는 CP에 이메일을 보내 “법무부가 남침례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에 여러 SBC 단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SBC 지도부는 “수사에 완전히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가이드포스트 솔루션스(Guidepost Solutions)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포스트 솔루션스는 SBC 지도자들이 성학대의 희생자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들의 채택을 거부해 온 사실을 보여 주는 288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계속해서 성학대와 관련된 과거의 실수를 애도하는 가운데 SBC 현 지도자들은 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SBC 집행위원회가 완전히 투명한 조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약속의 증거”라고 했다.

SBC 지도부는 “우리의 개혁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법무부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성학대라는 재앙을 투명하게 다루겠다는 우리의 입증된 약속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위로를 받고 앞으로 며칠과 몇 주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겸손히 요청한다. 특히, 조사를 처리하는 각 사람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오하이오주 7개 교회 헌금으로 저소득 지역 사립학교 설립

7개 교회가 모금한 기금으로 저소득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사립학교가 올 가을 미국 오하이오 주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스쿨(Westside Christian School)은 오는 25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힐탑 지역에 있는 메모리얼 침례교회(Memorial Baptist Church)에서 시작해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까지 최소 40명의 어린이를 섬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자유와 신앙에 기반한 공공 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인 ‘기독교 가치를 위한 센터’(CCV) 회장인 에런 배어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배어 회장은 “많은 아이들, 특히 도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

이 읽거나 기본 수학을 수행하지 못한 채 콜럼버스 공립 교육구를 졸업한다”고 말했다.

배어 회장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학교가 CCV의 시범 프로젝트이며 앞으로 교회 시설에 더 많은 기독교 학교를 수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배어 회장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CCV에는 이미 내년에 학교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20개의 교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저렴한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구축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새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이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CCV는 주중에 이미 비어 있는 교회에 기독교 학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Unsplash

배어 회장에 따르면, 등록한 학생들은 주 정부의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학생 당 5천5백달러가 제공된다.

배어 회장은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교회에서 학교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남가주지역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한

WE BRIDGE CONFERENCE

주제: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으로의 결단

@토렌스 조은교회 | SEPT. 26th-28th

We Bridge는?

-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로 잇는 공간
-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함께 돕는 모임
- 연합과 동역을 통해 세상을 살릴 교회의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

참가 자격 (남가주지역 교회 대상)

- 예배인원 성인 30명 이하 교회의 담임목회자 및 사모, 연령 59세 미만
- 개척 혹은 설립한지 10년 미만의 교회
- 자체 건물이 없는 렌트 교회로 지금도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의 교회
- 현재 외부 재정 후원이 없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 컨퍼런스 참가교회에 한하여 2023년 1월부터 매월 \$500불씩 3년간 재정 지원
- 컨퍼런스 후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지원

We Bridge 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후원방법

Zelle : chdailyreporter@gmail.com
 jcjohn@hanmail.net
 213-718-1512

Paypal : prozusa1@gmail.com

Venmo : @youngok



숙소:

SONESTA ES SUITES TORRANCE REDONDO BEACH

설교자:

권준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김경진목사, 김우준목사, 오명찬목사, 고승희목사

특강 강사:

이상명 총장, 이상훈 총장, 김섭리 목사, 정한나 사모, 최은희 강사, 존치 목사, 송정명 목사

기획 / 예배 찬양:

ONEHEART WORSHIP



WE BRIDGE
CHURCH TO CHURCH

☎ 213.739.0403

✉ webbridgeinfo@gmail.com

기획: Oneheart Ministry | 주관: 기독일보 ING CBS
 후원: We Bridge 후원 교회, 한국 헤민병원, PRO-Z USA, DB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합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토)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섬김하며, 이만2세를 기뻐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에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세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에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 생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y)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자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에: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3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라디오 오후 6: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양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양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별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에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 복음주의자 25% “방언 한 적 있지만 오순절 교인은 아냐”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신임 총리. ©인스타그램

미국 복음주의자들 대다수는 스스로를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 중 약 4분의 1은 방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는 현지 '인피니티 컨셉츠(Infinity Concepts)'와 '그레이 매터 리서치(Gray Matter Research)'가 1천명 이상의 복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 '갱신주의자들: 오순절과 은사주의적 복음주의'(The Renewalists: Pentecostal and Charismatic Evangelicals)에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방언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스스로를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스스로를 오순절이나 은사주의자라로 여기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53%)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나 포스퀘어(Foursquare) 같은 오순절 교회 혹은 교파에는 다니지 않았다.

마크 드라이슈타트(Mark Dreistadt) 인피니티 컨셉츠 설립자 겸 회장은 이번 연구와 관련, ‘갱신주의자(오순절 또는 은사주의) 복음주의’ [Renewalist(Pentecostal or Charismatic) Evangelical]를 정의하는 것이 우선 중요했다고 말했다.

드라이슈타트 회장은 “갱신주의자는

전통적으로 자신을 오순절 또는 은사주의자라고 생각하거나, 오순절 또는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거나,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며 “문제는 이 세 가지 정의가 상대적으로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36%가 드라이슈타트 회장에 제시한 세 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지만,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이들은 6%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분명히 오순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45%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말한 적이 없다고.

보도에 따르면 갱신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주의자들보다 다소 젊고,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인종적으로 더 다양하고, 북동부 및 서부와 같이 전통적으로 덜 기독교적인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한 다른 복음주의 그룹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참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갱신주의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소그룹 참여 및 교회 출석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밖에 이 연구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들의 최소 13%는 명백히 오순절 또는 은사주의 교회 또는 교단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회나 교단들 사이에도 서로 차이는 존재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따르면 갱신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주의자들만큼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부되는 가구 소득의 비율은 더 낮은 경향이 있다.

평균적으로 갱신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주의자들에 비해 약 20% 더 적게 헌금하는 반면, 교회 밖의 자선단체와 사역의 경우에는 28% 더 적다.

이러한 헌금 습관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갱신주의 교회의 교인들은 헌금을 적게 하면서도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 및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기독교 번역 재단 “2023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 완역”

미국의 한 성경 번역 재단이 2023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을 완역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4.2.20 성경 언어 및 번역을 위한 재단 연구소’(4.2.20 Foundation-Institute for Biblical Languages & Translation)는 지난 16일 CP에 보낸 성명에서 연구소가 교사를 포함한 직원 수를 35명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리키 키도움 4.2.20 재단 비서실장은 “기금과 관련하여, 예루살렘과 온라인 모두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훈련된 성경 번역가 및 컨설턴트를 후원할 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구두 및 청각 장애인 성경 번역가를 위한 온라인 커리큘럼 및 지식 리소스를 개발 중이며,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었는지 확인차 현장에 갈 것”이라고 했다.

또 재단이 47개 이상의 성경 번역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훈련된 이들이 미래의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재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4.2.20 번역 연구소는 예루살렘과 온라인상에서 히브리어 번역가 및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언어 사용자가 구약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 번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언어의 90%가 여전히 성경 완역본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400개가 넘는 수화 언어 중에서 신규약 성경 완역이 있는 언어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고 재단은 밝혔다.

올해 오순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소재 정원 무덤(Garden Tomb)에서는 ‘구약 및 성경 원문의 사용’을 세계적으로 확장



©위클리프 성경 제공

하기 위한 협의회가 개최됐다.

CBN 뉴스에 따르면 로잔 운동의 전 회장인 램 기두말은 연설에서 “원문과의 격차는 원본이 저조하게 번역되고, 적게 사용되며, 자주 오해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원문의 증언을 모든 살아있는 언어로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2.20 재단의 사장 겸 CEO인 데이비드 스와르드 원문과 번역본 간의 격차를 지적하며 “이것이 협의의 핵심 사안이다. 주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있다”면서 “성경 원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라고 말했다.

4.2.20 재단은 완역본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구약을 배제한 신약 성경 버전인 갭 성서(Gap Testament)를 출간했다.

김유진 기자

“러 침공후 우크라이나 침례교회 400곳 소멸”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물품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대성당 ©고통받는교회돕기(ACN) 제공

야로슬라프 피츠 우크라이나 침례신학교(Ukrainia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UBTS) 총장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400여 침례교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피츠 총장은 지난 12일 남침례교 교단 지인 ‘배티스트프레스’(BP)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약 400개의 침례교회를 잃었다”며 “리더십 역량을 재건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축이다. 건물을 재건해도 교회를 이끌 목회자가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도전 과정은 벽과 창문, 문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겪은 도전과도 같다. 실제 과정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이 아니”라며 “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다. 여기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복음주의 기독교침례교회 우크라이나 연합(All-Ukrainian Union of Churches of Evangelical Christian Baptists)에 따르면, 지난 2월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

기 전 우크라이나에는 약 2,300개의 침례교회가 있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출신 동문인 피츠는 BP에 “군사적 충돌로 인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난민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미래에 우리의 주요 과제는 잃어버린 (목회) 리더십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슬프게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 미국이나 독일,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 함께 목회자들도 떠났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인 리비우에 있는 여정교회(Journey Church)를 개척한 그는 우크라이나에 남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전쟁 피해 난민들을 돕는 구호 사업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난민 구호소에 대한 기부금이 계속 줄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침례회 오후 7:30 (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OC예배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OC예배 주일예배 오전 11:30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저녁 7: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2351 W. Orangeforte Ave., Fullerton, CA 92833
15614 Redd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대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거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9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백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아인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름(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림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꾼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남성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연합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성령의: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이집트 카이로 교회 화재로 40명 이상 사망



앙가엘로스 총대주교, ©BGEA UK

런던의 콥트정교회 총대주교가 이집트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애도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13일 카이로 외곽 임바바의 아부세페 인콥트정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에는 18명의 어린이와 압델-메시 베킵(Abdel-Messih Bekhit) 신부도 포함됐다. 경찰은 베킵 신부에게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그가 실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앙가엘로스 총대주교는 “비극적인 인명 손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더 비극적인 사실은, 예배의 특성상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했고, 가족들이 수많은 이들을 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고, 또 많은 이들이 병원과 집에서 부상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슬프게 떠난 이들에게 안식을, 그들을 애도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짊어질 이들에게 치유를 주시길 기도한다. 앞으로 가족들과 지역사회가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이 비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집트 내무부는 이번 화재가 교회 2층에 있는 에어컨의 전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건 당일 오전 9시에 화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교회 인근 주민인 아흐메드 레다 바이우미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며 “그러나 불이 점점 커져서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더 들어가면 질식할 정도였다”고 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불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무사 이브라힘 콥트교회 대변인은 “이번 화재는 돌발적인 사고였다”고 했다.

앙가엘로스 총대주교는 긴급 구조대의 대응이 느렸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비극의 순간은 필연적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 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통, 부모를 잃은 자녀, 이산가족, 이산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게 한다. 우리는 공통된 인간성에서 희망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고, 슬퍼하고, 존중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생명의 신성함을 공유하는 경험을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약속과 권능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이 참혹한 경험으로 깊은 영향을 받은 우리와 함께 남아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나다니엘 호손의 “반점(Birthmark)”

“울타리선교회 후원 음악회를 다녀와서”

지난 8월 15일, 엘에이 다운타운에 소재한 월트 디즈니 홀에서는 엘에이 홀리스 사역을 하는 울타리선교회(나주옥 목사) 후원 음악회가 열렸다.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홀리스 자녀들의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 음악회가 어느덧 5회째를 맞았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디즈니 음악홀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다. 후원받는 것도, 그곳에 관객들을 동원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연주할 공연자들의 실력이 높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연도 수준급의 프로그램 진행과 연주 실력에 1천여 명의 관객들은 순서마다 감동과 기쁨의 브라보를 연 발했다. 72인의 풀 엘에이 오케스트라(지휘:김영재)와 130명의 연합 합창단의 미국국가, 코리아 판타지의 피날레 공연은 온 청중의 가슴을 터지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어느 사이에 울타리 선교회를 돕고자 시작했던 음악회가 그 규모나 수준이 엘에이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합창단과 연주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최고의 연합 음악 축제가 되었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멋진 것은 그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 후원도 하고 또한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발런티어들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전해 들은 말이 있다. 사실 더 많은 연주 팀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두 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의 문제로 부득이 연주하지 못한 팀들도 있었다고 한다. 모두가 참 고마운 분들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울타리 선교회는 후원금 13,000불로 13명의 홀리스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각기 1,000불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장학금은 한인회장에게서 일괄적으로 받고 한인회가 전달하기로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연은 8월 15일에 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광복 77주년 기념행사처럼 되었다. 울타리 선교회를 후원하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는 음악회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의미까지 갖게 된 것이 필자도 이사 중 한 명으로 여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프로그램 중에 “뮤지컬 도산 안창호”에 출연하는 4명의 특별 공연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이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멋진 무대였다.

뮤지컬 도산 안창호는 부에나파에 위치한 라미라다 공연극장에서 이번 8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오랜만에 한국 뮤지컬의 수준 높은 공연도 보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긍지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울타리 선교회를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엘에이의 한인들이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게 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컸음을 고백하면서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피날레 후에 앵콜송으로 흑인 찬양 가수의 독창과 72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130명의 연합 합창단이 부른 ‘Amazing Grace’는 모든 관객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명장면이었다. 감동을 받은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대화가 내년이 기대된다는 얘기가었다. 필자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귀가했다.

끝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신 이번 공연에 참여한 200여 명의 연주자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관람해 주신 1,000여 명의 관객들, 총진행자와 스텝들의 수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누구보다도 지난 20년 세월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홀리스 형제들에게 엄마같이 형제같이 사랑으로 살아오신 나주옥 목사님과 나하나 선교사님 자매들께 깊은 존경의 고개를 숙인다.

오래전 에일머(Aylmer)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조지아나라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과학자의 탐구 정신과 철학적 사고의 결론으로 프러포즈했습니다. 세밀한 과학자 에일머가 섬세하게 살핀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에일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지아나! 당신의 뺨 위에 있는 그 점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아뇨, 한 번도요.”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크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진지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점을 저의 매력이라고 말해서 저도 저의 매력으로 생각해 왔는걸요.”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조지아나는 그때까지 자신의 얼굴에 있는 반점을 자신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지아나에게 빠진 남자들은 조지아나에게 그 반점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조지아나 얼굴에 있는 반점을 만지거나 그 반점에 입맞춤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일머는 그 반점을 빼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에일머는 계속 말합니다. “다른 사람 얼굴의 점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조지아나, 당신은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점이라도 결함이 되는 거요. 아니 그걸 결함이라고 해야 할지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에게 지상 세계의 불완전한 표시로 보여서 날 놀라게 하요.”

남편이 자신의 얼굴에 있는 반점 때문에 놀랐다는 말에 조지아나도 놀라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칩니다. “어머, 제 점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그녀는 분노를 느꼈고 곧 눈물이 터져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청혼했어? 당신을 놀라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순 없을 텐데요!” 자신이 자랑하는 반점을 트집 잡는 남편 말에 그녀는 프러포즈와 결혼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지아나 얼굴에 있는 반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지아나 얼굴에는 붉은 얼굴빛보다 조금 더 진한 진홍빛 반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흥분하면 그 반점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 얼굴이 창백해지면 그 반점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이상한 변화 때문에 남편은 끔찍한 선명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점의 크기는 새끼손가락 끝마디만 하고, 형상은 손의 형상과 아주 비슷해서 조지아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정이 그녀의 얼굴에 손을 얹고 그녀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을 부여한 표시로 흔적을 남기고 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그 반점과 조지아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핏빛 반점이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에일머는 그녀의 반점에 집착합니다. 그녀를 보기만 하면 반점이 보였고 그 반점을 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나아가 그 반점을 아내의 죄와 슬픔과 쇠락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 반점을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할 상황에도 그 반점을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요컨대 에일머는 반점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얼굴의 반점이 불완전을 상징하고, 불행과 불운을 품은 것으로 의식하는 에일머의 시선을 아내 조지아나가 알아차립니다. 남편의 그런 시선을 느끼면 살이 떨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표정만 봐도 불안합니다. 어느 날 조지아나는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점을 제거하고 싶다고 말하며 당신이 이 반점을 잘 제거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에 에일머는 안전하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조지아나는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반점을 제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지아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반점이 남편의 공포와 증오

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런 남편의 맘을 알고 나니 그녀도 행복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자랑거리였던 반점이 이제는 불행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자신의 연구실(반점 제거 시술 장소)로 안내했을 때 조지아나는 기절합니다. 그녀는 반점 제거를 그만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에일머는 쉬지 않고 온갖 과학 서적들을 탐독하며 반점 제거를 연구합니다. 연구와 실험을 하면서 자신감을 느끼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아내를 설득합니다. 그레도 성에 안 차거나 미심쩍으면 아내를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아내에게 실험 내용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얼마 후 자신이 개발한 물약을 가져다 아내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약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더니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녀가 죽은 것입니다.

이상한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소설 “반점”의 줄거리입니다. 호손은 문학적으로는 걸출한 작가이지만 반 청교도 문학을 시작한 작가입니다. 그는 청교도의 경건운동을 악하게 묘사한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주홍 글씨”는 청교도 문화에 반발로 쓴 작품입니다. 그는 “주홍글씨”로 청교도의 위선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악한 문학 작품의 해악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손은 천재적 문학 실력을 악하게 사용한 작가입니다.

‘반점’에 등장하는 남편 에일머는 과학자의 지식과 연구자의 끈기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큰 장점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실례입니다. ‘반점’은 인간의 집착과 편협한 지식의 해악을 보여줍니다. 집착은 무섭습니다. 집착은 지식이나 경험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강점도 집착하면 약점이 됩니다. 집착이 심하면 탁월한 과학자도 바보가 되고 편협해집니다. 집착이 불행입니다. 집착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집착은 불만족에서 옵니다. 과학자 에일머는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아내의 미모와 반점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에일머와 조지아나의 치명적 불행의 뿌리는 에일머의 불만족에 있습니다. 불만족은 불행의 지름길이며 불만족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비율의 자족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과 감사는 한 쌍입니다. 이들의 열매가 행복입니다. 현실을 축복으로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교육의 리더십(CEDL) 선진대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일일상담: 조성호 박사 71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목적(2)

출애굽기 9:13-2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5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19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21 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26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살리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이사야1:19-20)”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생계마저 유지하기가 어려운 처지이지만 주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처럼 교회에 나온 발걸음은 참으로 복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34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

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했으며 사도행전 2:4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이 이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을 전해야하며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이성을 잃고 사단의 울무에 걸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영원히 시달려야 할 꺼지지 않는 유희불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고 멸시하고 능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불신앙의 형벌로 인해 지옥의 고통을 미리 앞당겨 치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39에 보면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있으며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 계심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이며 악령이 사람을 미치게도 하며 불행하게 생

지옥을 만드는 것을 보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가야 할 지옥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꾸어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시간부터 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는 수고는 유익한 성과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불신앙으로 심은 죄악은 사단이 열심히 가꾸어서 불행하게도 저주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을 각오해야 할 입장이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보장해 주실 것이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말씀이 심판하는 칼날이 되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죄 값을 치르다가 결국 꺼지지 않는 유희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쓰임 받기 위해 우리가 능력의 도구가 되어 실재한 인생들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영생복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앙 인생이 되어가길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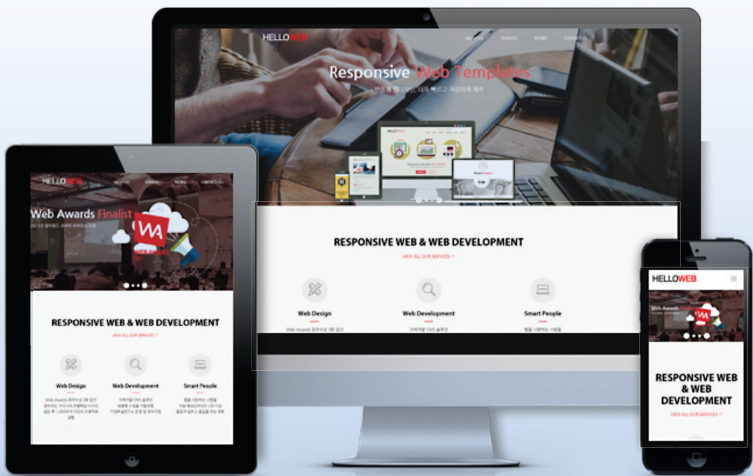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아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 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아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내려놓음의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려놓음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영성 훈련이며 삶의 예술입니다. 내려놓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는 내려놓지 못함으로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증폭되는 이유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이며, 내려놓음이 왜 지혜인지 몇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내려놓음은 기도입니다. 내려놓음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인생은 어렵고 감당해야 할 짐은 무겁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시 68:19). 기도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내려놓음은 맡김입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할수록 그 집착하는 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삭이 그의 우상이 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창 22: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숫양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

함은 그날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맡겼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더 이상 이삭에게 집착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내려놓음은 비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은 비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움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비움이 없이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움이 없이는 유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상한 음식으로 가득 찬 그릇에 신선한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꽉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움이란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붙잡아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할 연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죄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비워야 할 아집과 고집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미움과 복수심과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목요일마다 쓰레기통을 길에 내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에 쓰레기를 치우는 차가 와서 쓰레기통을 비워주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산다면 집은 음식 썩는 냄새와 구더기와 파리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비워야 할 것을 비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내려놓음은 유연함입니다. 딱딱한 것은 부러집니다. 하지만 유연한 것은 오래

갑니다. 딱딱한 차아보다 부드러운 허가 오래갑니다. 직선보다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곡선의 아름다움은 유연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는 고난과 시련은 없어야 하며, 꽃길만 걷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않았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시련을 통해 유익을 얻느냐, 무너지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내려놓음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육의 힘을 빼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힘을 적절하게 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너무 힘이 들어가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을 적절하게 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우리의 집중력은 놀랄 만큼 커집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5-②

메타버스 속 위험 요소 4가지

프랑스는 3세 이하 자녀에게 미디어를 금하고, 18세 이하까지는 공공장소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미디어 시청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이 다 개발되는 25살까지 미디어와 메타버스 속 검색만 하기보다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메타버스 스쿨혁명〉, 김은형 저자는 온라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메타버스는 개발자의 세계관에 의해 창조되고, 운영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메타버스는 개발자의 세계관과 상상력에 의해 구현된 창조적 세계다.”

“게임처럼 반복되는 수행으로 무의식의 변화를 꾀하며 삶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런 메타버스 우주 속에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가려면, MZ, 세대는 건강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을 할 수 있도록 독서를 해야 합니다.

4) 메타버스를 즐기는 가운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타버스 골드러시〉, 민문호 저자는 메타버스 안에서 MZ 세대가 돈과 시간을 상당히 사용한다고 합니다.

“로블록스의 월간 사용자는 1억 5,00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2021년 1분기에만 100억 시간을 소비했다. 매일 4,200만 명이 로그인한 셈이다.

또한, 이들은 모자와 열기구,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게임 화폐 로벅스(Robux)에 6억 7,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 가상화폐 로벅스는 약 0.0035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MZ 세대가 그냥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 머물수록 시간만이 아니라 재정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 안에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금전적 소비도 지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은형 저자는 〈메타버스 스쿨혁명〉 책에서 메타버스 속 MZ 세대가 일탈의 공간 속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축제를 즐기려고 한다고 지적합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메타버스 세대 아이들의 니즈가 담긴 단어들을 골라보면 ‘음식, 자유, 관계, 체험’으로 요약된다. 그들에게는 일상생활과 가족과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일탈의 공간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도 크다는 것을 설문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축제를 함께 즐기고 싶은 대상자를 묻는 질문에서 혼자서 즐기겠다는 답변이 65%나 된다.”

메타버스를 부모님이 볼 때는 대단한

디지털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속에서 자유롭게 관계하고, 즐기는 가운데 젊은 시절 목표 없이 그냥 표류할 수 있습니다. MZ 세대는 넓은 메타버스 속 미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 서울 (310) 538-3333 | LA (323) 582-2424 |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진유철 칼럼

사명의 지도자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사람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

던 사사시대에는 침략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였던 시대에는...

다. 학급의 반장이나 동네 심부름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와 어려움 앞에서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안 되면 기도하게 되고...

김한요 칼럼

보화와 진주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천국은 이와 같으니...”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수요예배 때 공부하면서...

팔아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변화되는...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밤새 잠 안 자고 전화에 매달릴 수가 있나요?

자기의 이상형을 발견한 연인도 이렇게 변하는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는 이야기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변화의 근거가 됩니다. 나를 값진 진주 같이 여겨 주셔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사신...

영국의 대 설교가 스펀전 목사님은 ‘보화를 발견한 자의 변화는, 세 가치를 내려놓는 것을 보며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관들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시시해집니다. 옛날에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하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게 됩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님들은 값진 진주로 주님께 발견된 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준선교
박상원 목사

경비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철갑이를 보고 화가 나서 육설을 퍼붓더니만 그를 밀쳐 버렸다.

에 붙들려 바로 보위부로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나는 철갑이의 죽음에 의문이 있었다. 한 번 주먹을 날렸다 하면 갈비뼈가 으러질 만큼 괴력을 발휘하는 사나이인 철갑이가 왜 그날 어린 경비대에게 맥없이 붙들렸던 것일까?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제아무리 강철 주먹이라도 하나님이 오라하시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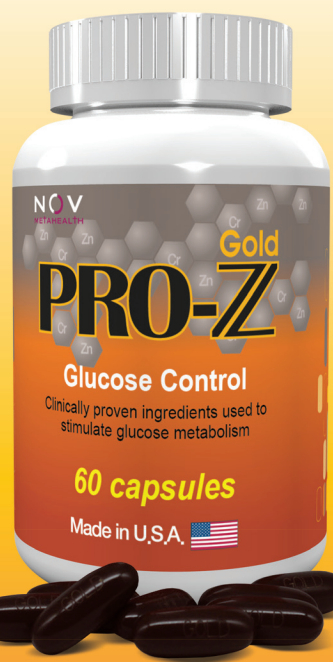
나는 솔직히 한편으론 철갑이가 부럽기도 하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혹여 교만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차라리 철갑이처럼 일찌감치 죽어서 신앙의 순수를 지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사다.

“내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겠다.”

철갑이는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땀을 마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를 먹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모질고 혹독한 고문을 이겨 낸 위대한 순교자다.

“하나님, 나의 육신을 죽음에 내주지 않으니 나는 오늘도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 갑니다. 하나님이 분향으로 돌아오라 불러 주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험악함을 참으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도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피로,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모든 사람의 인생 목적, 영혼을 구하는 삶

저 천국에서도 이룰 수 없는, 이생에서 꼭 해야 할 '버킷 리스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밋 교회 담임 목사인 J. D. 그리어는 복음과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둔 저자이다.

국내에 소개된 책만 봐도 <복음본색> (새물결플러스, 2013), <구원의 확신> (새물결플러스, 2019), <오직 복음> (생명의말씀사, 2020) 등 복음과 구원 관련 책들이 대부분이고, 복음 전도에 관한 책도 두란노에서 2015년, 2016년 각각 출간한 <지저스 컨티뉴드: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라!>,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이상 두란노), 그리고 2021년 출간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계속된다.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제목만 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삶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처럼 보이지만, 원제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life'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단순히 독자가 원하는 인생 목표를 세우는 걸 돕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목표, 지상 대 명령인 전도를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책임을 알 수 있다.

번역서에서 추가한 부제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렛대로 드리기를 위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높이기 위해 지렛대처럼 삶을 힘껏 누르는 힘은 사망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다.

그리어 목사의 문체는 매우 간결하고 직접적이다. 복잡하고 깊은 성찰이 필요한 주제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주제를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여 설득하는 방식이다.

그는 존 파이퍼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설교를 소개하고, 교회사에 있어 복음 전도에 열정적이었던 인물 진젠드르프의 삶을 조명한다. 짐 엘리어트의 삶과 간증을 눈앞에 펼치고, 중국 선교사 윌리엄 보든의 희생적인 삶으로 말을 건다. 많은 예시와 간증, 예화와 실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생을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 찬미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것이다.

이 책이 준 신선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는데, 2장에서 버킷리스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읽었을 때였다.

"이 땅에서 내가 놓친 것 가운데 저 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딱 하나만 빼고. 거기서 할 수 없지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버킷리스트에 넣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48쪽)".

맞는 말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누리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선하고 좋은 것임에 틀림 없지만, 인생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리스트의 상위에 랭킹 되어 있지 않은 건 큰 문제다.

잠깐, 전도는 전도사, 목사 혹은 선교사의 전공이 아니던가? 그리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꾼이 있는 건 맞지만, '내 증인이 되어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다.

예수님은 모든 일꾼을 불러 결산하실 것인데, 각각 받은 재능, 은사, 시간, 기회, 물질 등을 가지고 부르신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저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핑계하며 물어둔 혹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다 남은 달란트를 꺼내 보일 수 없다.

착하고 충성된 좋은 달란트를 남긴 자, 열매 맺은 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산 제자들이다.

또 한 가지 그리어 목사의 실례를 통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과연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지, 보배로운 복음과 끔찍한 영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있는지에 관한 반성이다.

한 구도자가 그리어 목사에게 '당신은 정말 당신이 내게 말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논리적으로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책망한 것이 꼭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166-167쪽).

인생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만나는 모든 인생에게도 의미가 있다. 이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유익과 가치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복락과 가치가 걸려 있다.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책의 마지막엔 Go2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그리어 목사 시무 교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2년간 선교지나 미자립교회가 있는 곳 부근에 직장을 잡고,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대학부터 취업까지 가장 안정적이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최대한 삶을 조성하려는 현대인에게 대단한 모험을 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보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게 하는 유익한 도전이 되며, 이것이 또한 남은 삶을 허비하지 않고 살게 하는 도움닫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누구나 자기 삶을 귀히 여긴다. 그냥저냥 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먼저 본을 보이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다.

이생뿐 아니라 영원한 내생에서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될 참된 인생. 내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런 참 인생으로 남는 데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J. D. 그리어 목사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당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일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8월, 작가들의 말말말④]

◆ 존 파이퍼(저자), 유평희(옮긴이)
- 존 파이퍼의 갈라디아서 강해

저는 제가 원하는 설교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의 설교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고 주의 깊게 읽고,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 이어지는 문장들 간의 의도된 관계, 전체 단락을 통해 일관된 사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소수의 학자들만을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과 겸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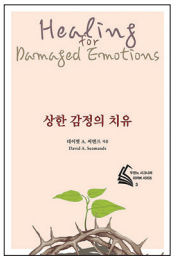
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이라는 고백(갈 1:1)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께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쓰여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 데이비드 A. 씨맨즈(저자), 송현복(옮긴이) - 상한 감정의 치유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발견한 사실이 있다. 나는 정규적

인 교회 사역을 통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문제는 설교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또 교회 봉사나 성령 충만, 기도나 성례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훈련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

했다. 오래되고 망가진 음반을 틀었을 때 바늘이 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듯이 그들의 감정은 계속 패배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외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고 죄를 자백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로 빠져 들었다.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 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환율변동)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우정과 환대의 표상 <해바라기>

하나님 향한 기대 나타낸 명작,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자급자족하며 집중할 수 있는 화가 공동체 꿈꾸며 그려 동료 화가들 향한 기대, 강렬하고 뜨거운 화풍으로 표현 하나님 말씀과 은총 받아들이는 마음에 귀 기울인 소망 '광기'의 반 고흐? 주마간산식 해석, 그는 '성경적'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1888년 2월 남부의 빛을 쫓아 프로방스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반 고흐는 자신의 회화를 성숙시켜 절정으로 끌어올린다.

그는 먼저 작은 집을 빌려 노란색으로 단장한 후, 해바라기 꽃 그림으로 장식하였다. 이 작품은 <해바라기> 연작 가운데 하나로, 반 고흐에게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안겨 준 작품이다.

<해바라기>는 색채, 특히 노란색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그림이다. 그림을 그리기 며칠 전에는 작열하는 남부의 태양을 동생 테오가 직접 와서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했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지만 나는 태양의 빛줄기를 보며 노란색, 옅은 유향색과 레몬옐로, 금빛이란 말이 생각났을 뿐이다. 얼마나 노란색이 아름답던지"(1888년 8.13일)

반 고흐에게 노랑은 무엇보다 희망, 기쁨과 설렘을 반영하는 색이다.

그가 사용한 원색은 생경하지 않고, 우아하고 매력적이다. 대상에 대한 공명에 기초한 정서를 바탕으로 리드미컬한 빛놀이와 순도 높은 색채를 접목시켰다.

노란색은 처음에는 남부 아를의 햇살에서 시작되었지만, 해바라기에서도 역시 그것에서 받은 감동은 전혀 반감되지 않았다.

<해바라기>는 특별한 의도를 지니고 제작된 것이다. 고흐는 이전부터 화가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다. 화상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면서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소망했던 것이다.

"12명의 라파엘 전파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인상과 화가들의 공동체 결성은 꼭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화가들이 공동체에 일정 분량의 그림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이익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서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들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1888년 6월)

구체적으로 그는 피사로, 고갱, 베르나르와 같은 화가들과 아를에 화가 공동체를 건립하려고 했다. 혼자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공간을 프로방스의 중심가에 임대한 것은 예술가들을 초대해 당시 브르타뉴의 퐁타방(Pont-Aven)에 설립된 화가공동체와 유사한 것을 조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첫 시도로 폴 고갱(Paul Gauguin)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를 위해 <해바라

기>를 제작한 것이다.

"나도 마르세유 사람들이 부야베스 생선 수프를 먹는 것처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 지금 내가 커다란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놀라지는 않겠지. ... 고갱과 함께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틀리에를 장식하고 싶어졌거든. 오직 커다란 해바라기로만 말이다."

그림은 동료 화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의 감정을 담고 있어 강렬하고 뜨겁다. 그림에는 우정과 환대와 같은 감정이 실려 있는 셈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그림을 그리고 싶다. ... 사람들이 내 작품에 대하여 '그는 철저히 느끼고 있구나, 민감하고 다정하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 숙달되고 있다. ... 이것이 바로 그런 모든 소리를 듣는다 해도 분노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바탕을 둔 나의 큰 뜻이자 희망이다."

세밀한 감정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다. 고흐는 산책을 하면서 주위 것들의 독특한 표정과 자세를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다.

가지 잘린 버드나무 행렬에서는 구빈원에 줄지어 있는 사람들을, 어린 옥수수나무나 순수하고 유연해서 잠든 아이의 표정을 보는 것같은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길쭉한 짓밟힌 풀은 빈민가의 주민들을, 눈 내린 밭의 양배추는 이른 아침에 온수와 석탄을 파는 작은 상점 앞에서 있는 낡은 술을 뒤집어쓴 여인들을 연상할 정도로 그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사물들은 때때로 무언가 형언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니며, 모든 자연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래서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으며, 파악할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게 하신다"고 했다.

예술은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가 말했듯이 그 자체가 선물인 우리 존재의 일부에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술가처럼 우리의 은사를 고백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대리인을 통해 우리 존재의 자질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진다.

H. R. 그레츠(H. R. Graetz)의 말처럼, 해바라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태양 같고 혹은 빛 같은 것들은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 동생 테오와 고갱, 베르나르, 그리고 그가 친밀감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캔버스에 유채, 73 x 92.1cm, 1888년, 런던 내셔널 갤러리)'.

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를 상징한다.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시인 엘리자 로릴라드(Eliza Laurillard)는 반 고흐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이 시인(엘리자 로릴라드)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시 84:11)'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이다. 우리는 태양 빛이 우리의 가정과 정원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오듯,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가슴에 비추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 마음은 빛줄기의 조명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부단히 위대한 빛을 향하면서 해바라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릴라드의 말은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에 담긴 의미를 잘 기술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귀를 기울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목회자의 꿈에서 고흐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빛진 자의 마음 때문이란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 빛과 의무를 지고 있다. 나는 30년간이나 이 땅 위를 걸어오지 않았다!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림의

형식을 빌려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다. 이 런저런 유파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남기고 싶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1888. 8. 4-8일)

반 고흐를 '광기의 화가'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시각에 불과하다. 그는 누구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사람과 자연에 대해 속깊은 이해력을 지닌 화가였다.

<해바라기>는 하나님에 향한 기대감과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낸 역작 중의 한 점이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dvertisement for Alex Kim Trading, featuring used car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ir services, including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Jun Lee Insurance, providing life insurance rates for various ages and amounts.

Advertisement for Junim Media, offering content creation services.

Advertisement for Inex Auto Collision Center, offering car repair and insurance services.

Advertisement for Cooking Mom, featuring food items and contact information.

2022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

엔데믹(endemic)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Conference에 초대합니다.

- **대 상**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 **등록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 **등록 방법 및 문의**

인터넷 등록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미국Conference' 신청페이지 작성

등록 및 문의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 21danielprayer@gmail.com
 ☎ 02-6413-4922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륜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 1차

New Jersey Conference

일 시 2022.9.13 (화) 10:00~15:00

장 소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담임목사)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 ☎ 201-461-1225

| 2차

Washington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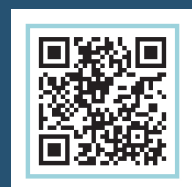
일 시 2022.9.19 (월) 10:00~15:00

장 소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렬 담임목사)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 703-815-1200

○ 사전등록 혜택 ~ 8월 31일 까지 ○

- ① 강사 저서 증정
- ② OBOX(기독교 콘텐츠 OTT 서비스 전용셋탑)
- ③ 꿈미패키지(샘플북 & 콘텐츠usb)
- ④ 한국 방문시 오륜교회 사역탐방 기회 제공
- ⑤ '미국 동부 사랑의헌금 프로젝트' 기회 제공

- 1) 대상 : ·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 재정 성도 30명 이하의 교회
 · 교회 렌트 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 conference 사전 등록 및 다니엘기도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
- 2) 접수 방법 및 기간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8월 31일까지 접수
- 3)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 후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conference 당일 사랑의헌금 지급



등록 QR 코드